

새만금 산단 투자환경 개선 논의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전북도가 신원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기업의 어로점과 건의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산단 현장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주)이산고빌리티, (주)신화철강, (주)코스텍 등 새만금산단 투자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겪는 장애 요인과 어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투자기업들은 도로 교통 개선, 산단 흥보용 디스플레이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 산단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관련 자금지원,



전북도가 신원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산단입주계약 체리기간 단축 등 행정 사항도 건의했다.

이에, 참석한 유관기관은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산

단에 투자한 기업들에 감사드리며, 코로나9 장기화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질 없는 투자와 가능을 당부 드린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만금 산업 단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우석대 이대근 교수, 총리 외교안보특보 위촉

우석대학교 이대근 교수(국방정책학과)가 총리 외교안보특보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외교안보·사회·방역 등 9개 분야 특별보좌관 12명을 임명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이대근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보좌관들과 함께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활동과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KIST-호아홈텍, 건축재용 탄소복합소재 기술이전 조인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이하 KIST)은 지난 8일 KIST 전북 복합 소재기술연구소에서 호아홈텍(주)(대표 박진철)과 협약도장, 열교설 및 난연성을 갖는 건축재용 탄소복합소재 기술이전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T 양철민 박사팀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산화그라핀 기반 고분산/고농도 전도성 그래핀-고분자 중간재 제조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열전도성, 축열성 및 난연성을 갖는 건축재용 탄소복합소재 기술이전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IST 양철민 박사팀은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은 '산화그라핀 기반 고분산/고농도 전도성 그래핀-고분자 중간재 제조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열전도성, 축열성 및 난연성을 갖는 건축재용 탄소복합소재 기술을 확보했다.

KIST 양철민 박사팀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호아홈텍(주)의 온돌 판넬 공장을 신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계와 출연연 지역조직간 협력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아홈텍(주)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온돌 판넬 20만세트(월 생산 기준)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설립(제1공장, 제2공장)해 이미 양산시설을 확보해 열효율을 올리고 사출성형 방식으로 대량생산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개발된 온돌 난방 시스템은 상·하판 판넬로 구성되며, 상판과 하판 사이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파이프 안에 온수를 순환시켜 건물을 난방하는 기술로 무엇보다 설비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요기업인 호아홈텍(주)은 KIST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해 전북도 군산에 탄소/고분자 복합소재 온돌 판넬 공장을 신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계와 출연연 지역조직간 협력의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아홈텍(주)은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온돌 판넬 20만세트(월 생산 기준)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설립(제1공장, 제2공장)해 이미 양산시설을 갖췄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김진상 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지역민의 지원 아래 설립된 KIST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탄소복합소재 개발의 성과를 이전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까지 이뤄 낸 것은 KIST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혁신 성장에 기여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본사 인사

▲이영태 경제부 기자
명 : 의원면직

9월 30일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	------------------------------------	----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최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김양옥 교수)

- ▷ 전답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답교수
- 전북대학 토론 및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할리우드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전안
원광대학교(의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의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파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약)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요리경연대회 수상작, 도민에게 선보인다

20일까지 전북온라인음식문화대전 수상작 도청 로비서 전시

제15회 전북온라인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 수상작과 시·군 대표 향토 음식이 12일부터 20일까지 전북도청 로비에서 전시된다.

도는 맛과 멋이 담긴 요리경연대회 수상작을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됐으며, 향토 음식과 창작 음식(일반, 학생, 디저트) 부문으로 나눠 24개 팀이 전북도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경연이 펼쳐졌다.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맛의 고장 전북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제15회 전북온라인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

됐었다.

요리경연대회는 고등학생 이상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국제한식조리학교 조리실습실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향토 음식과 창작 음식(일반, 학생, 디저트) 부문으로 나눠 24개 팀이 전북도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경연이 펼쳐졌다.

출품작은 향토성, 조리의 기술성, 보급성, 창의성과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심사 결과 향토 부문에는 '부안회

'오리삼합'을 선보인 격포어촌체육센터 박대희, 김효정 씨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창작 일반부문에서는 '선유도마지 락畔'으로 이성만 씨가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창작 학생 부문에서는 우석대학교 차하은, 김소정 씨팀이 '유자청을 결들인 백김치 샐러드'를 내보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디저트·제빵 제과 부문에서는 이은란, 이명희 씨팀이 블루베리 피자와 시과파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호상기자

등굣길 교통안전 민·관·경 합동 캠페인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출범 100일 맞아 14개 시·군 사고 다발 초등학교에서 동시 진행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일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전주 용흥초등학교 등 14개 시·군 사고 다발 초등학교(15개소)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캠페인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 경찰청(전주완경찰서 등 15개 경찰서),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원과 녹색야마니회, 학부모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해 3 건의 사고가 발생한 전주 용흥초등학교에서 방출원 시무국장은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한 전주 번월초등학교에 참석했다.

직원들은 현수막과 어깨띠 및 피켓을 활용해 정지선 지키기, 안전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에 대해 중점 홍보했고, 물티슈 등 기념품을 배부해 함께 한 도민과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이한 자치경찰 위원회는 당장 이번 달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 금지율을 적극 홍보하며, 안전한 전 리복도 만들기에 앞장섰다.

오는 21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기존의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 적용됐던 주·정차 금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 구역으로 확대·시행된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복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나와 가족을 위해 도민 모두가 선진 교통문화 지

김이 돼덟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2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소통대'에 오픈이벤트를 개최해 참여자에게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판소리 풍의 자치경찰 홍보 동영상은 도청과 시·군청 및 경찰서 등의 전광판에 송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벤전 등 12 학교에 대한 토양 국내수련도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 분석능력 국제적 인증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국내외 토양 오염물질 분석 평가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물질 분석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역량 강화

를 위해 참여한 국제수련도 평가에서 '최우수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제수련도는 전 세계 분석기관이 동시에 참여 프로그램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로

양분야에 올해 처음 참여해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민족을 받았다.

또한 국내 속련도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벤전 등 12 학교에 대한 토양 국내수련도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